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4.10.30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FP10에 큰 변화 요구, 준회원국 참여 제한될 가능성 있어...(10.24)

- EU는 유럽 국방 및 산업력을 위해 글로벌 과제를 덜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등 차기 연구혁신 프로그램(FP10)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준회원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
- 한편, 영국은 Heitor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훨씬 큰 FP10 예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준회원국이 감당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음
- 그러나 준회원국들 대부분이 공개적으로 경각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, Heitor 보고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
- ※ 영국의 과학혁신기술 담당 국무장관 Kyle은 FP10의 정책 변화를 우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“우리가 어떻게 전진할 것인지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”라고 말함
- ※ 뉴질랜드의 기업혁신고용부의 과학혁신국제정책 담당 Cossar는 Heitor 보고서에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가 많다고 언급

○ HE 클러스터 4 워크프로그램 초안 집행위 기술 자주권에 14억 7천만 유로(10.24)

- 클러스터4는 EU의 기후중립, 순환경제, 디지털 가치사슬 등 6개의 “도달 목표(Destinations)”에 따라 전체 76개 공고(연구 주제)를 제시
- 2025년 우주 연구 예산 1억 3,900만 유로에 달하는 30개 공고 중 16개는 EU 외부 국가의 제한적 참여만 허용하고 있음
- 그중 ISOS(우주 운영 및 서비스)라는 새로운 우주 시스템에 대한 공고는 (5,250만 유로) 주로 EU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 기업과 기관에만 개방되며, 한국, 캐나다, 영국 등 신규 준회원국 일부는 배제될 수 있음
- 일부 프로그램은 더 개방적으로 운영되며, 한국과의 양자 기술에 대한 초기 단계 연구에 800만 유로, 아프리카와의 AI 협업에 500만 유로, 미국과 AI 기반 건물 재건 프로젝트에 940만 유로 등이 포함됨

○ 자하리에바 신임 연구 집행위원, FP10 예비 계획 발표(10.23)

- 11월 5일 대면 청문회를 앞두고 유럽의회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집행위원은 최근 Draghi 총재의 EU 경쟁력 보고서와 Heitor 보고서의 결론을 바탕으로 “새롭고 강화된 FP 10”에 대한 예비 비전을 제시함

○ (기타) ▲유럽의회 집행위원 후보자들의 청문회 사전 답변자료 공개(10.23) ▲EIC, 2025년 딥테크 및 전략 기술 확장에 14억 유로 투자(10.29)